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 14권 3호 (2013. 12) pp. 41～50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4 Iss. 3 (December, 2013)

#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연구

배성숙*·노희진**† ·홍수민***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 Ethical Responsibil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Sung-Suk Bae*·Hie-Jin Noh**† ·Su-Min Hong***
*Dept. of Dental Hygiene, Hanseo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ty. College of health scienc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thical responsibility and necessity of dental ethics educa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Questionnaire was surveyed for 192 in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October 14th to 18th, 2010.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the subjects was measured with the descriptive analyses and one-way ANOVA using SAS 9.2.

**Result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82.8% of respondents received ethics instruction. 2. with regard to responsibility value of respondents, to clients and to colleagues were 3.71 (0.80) and 3.63 (0.82) was higher level than 3.49 (0.74) as individuals. 3. As for responsibility as individuals, item of personal health was the lowest value. 4. An advocate for the welfare of clients was the lowest value item concerning responsibility to clients. 5. As for responsibility to colleagues, constructive conflict management was the lowest item.

**Conclusion:** This study reveals that dental hygiene students need to promote ethical responsibility and ethics instruction should be reinforced within dental hygiene curriculum.

***Key words*** : Dental ethics education, Ethics instruction, Ethical responsibility

접수일 : 2013년 10월 22일, 수정일 : 2013년 12월 4일, 채택일 : 2013년 12월 16일
교신저자 : 노희진 (200-70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길 346)
Tel: 033-540-3392, E-mail: nohh@kangwon.ac.kr

# 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치의학 의료 분야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전문화로 인해 치과병(의)원의 수적 증가와 대형화 추세로 눈부신 발전을 보여왔다. 이는 치과 의료기관들의 심화된 경쟁구도를 가속화 하였고 그로인한 경영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로 인하여 위배되는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업무와 진료보조를 담당하고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윤리적 책임감이 강하게 요구되는 전문직업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은 구강병 예방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습득에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윤리적 직무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다(이세정, 2012). 치과위생사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치위생 전공 과정의 학생들에 대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며 윤리적 의사결정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김윤정(2005)의 연구에서 2004년 전국의 치위생과 교과과정을 살펴본 결과 43개 대학 중 9개 대학만이 윤리가 교양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윤리의식 수준이 치과의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직무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졸업 전 대학에서 윤리의식을 올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이미 1981년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하여 2004년에는 이를 개정한 바 있다. 더불어 미국치과위생사협회 역시 '치과위생사윤리강령'을 만들어 치과위생사들의 윤리적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본신념(Basic beliefs)', '근본규범(Fundamental principles)', '핵심가치(Core value)'와 '직업적 책임감(Standard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Mark G Kacerik, 2006). 그 중에서 '직업적 책임감'은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의식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책임감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으며, 자신이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윤리적 책임감을 평가하는 일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윤리적 책임감을 확인하고 치과위생사로서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치과위생사들의 윤리와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임상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이선미, 2010; 김미정,2012)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윤정, 2005; 김윤정,2008). 그리하여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로서 가져야할 구체적인 행동이나 책임감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각 책임감의 영역에서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봄으로서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윤리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Ⅱ.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3개 3년제 대학(53.7%)과 1개 4년제 대학(46.3%) 치위생(학)과 학생 192명을 무작위로 선출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여학생 이었으며 3년제 대학의 경우 임상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년제 대학의 경우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대상이 되었다. 설문조

사 기간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2010년 10월 18일이었다.

### 2. 연구방법

#### 1) 설문지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미국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Association, 2013 #1] 중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관련된 '개인으로서의 책임감' 6문항, '대상자(환자)에 대한 책임감' 10문항, 그리고 '동료에 대한 책임감' 7문항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한 뒤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제와 학년, 그리고 임상실습 경험과 윤리학 수업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 3.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요약하였다.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학제와 윤리학수업 참여에 따른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대학별, 학년별 윤리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치과위생사 윤리강령 중 개인적 책임감,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 동료로서의 책임감의 설문항목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각각 0.839, 0.950, 그리고, 0.929였다. 윤리적 질문에 대한 모든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각각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한 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2 패키지(SAS Inc,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192명 이었으며, 모두 여학생이었다. 3년제와 4년제 학생의 비율이 각각 53.7%와 46.3% 였고, 3학년 학생이 12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모든 학생은 병원 임상실습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학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9명으로 82.8%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안은숙(1993)의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는 윤리교육을 받은 사람이 90.4%였고 이들 중 대학 과정에서 윤리교육을 받은 사람은 65.5%, 졸업 후 보수교육 과정에서 윤리교육을 받은 사람은 9.8%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선미 등(2010)의 연구에서 졸업 후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86.5%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의료인에게 의료윤리 및 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최근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의료윤리의 정립이 강조되고 있다(이세정과 한경순, 2012; Duley SI et al., 2009; Kacerik MG et al., 2006; 김윤정 외, 2005; Christie CR et al., 2003; Homenko DF, 2002; 안은숙, 1993). 치과위생사 역시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사명, 헌신, 소명, 봉사 등의 직업적 윤리의식이 요구되며(이세정과 한경순, 2012), 이를 위해 치위생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에서도 직업적 윤리의식 고취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항목 | 범주 | N | % |
|---|---|---|---|
| 학제 | 3년제 | 103 | 53.7 |
| | 4년제 | 89 | 46.3 |
| 학년 | 2학년 | 52 | 27.1 |
| | 3학년 | 120 | 62.5 |
| | 4학년 | 20 | 10.4 |
| 학교 | A | 89 | 46.35 |
| | B | 36 | 18.75 |
| | C | 51 | 26.56 |
| | D | 16 | 8.33 |
| 윤리학 수업 | 받았음 | 159 | 82.8 |
| | 받지 않았음 | 33 | 17.2 |
| 계 | | 192 | 100 |

## 2.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개인으로서 윤리적 책임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개인으로서 윤리적 책임감에 대하여 평균 3.49±0.74로 '보통'의 수준으로 응답 하였다.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안전한 진료실 만들기'와 '공정하고 정당한 이윤추기하기'에서 각각 3.70±0.92와 3.61±1.10로 높게 나타나 진료 부분에 대한 영역에서는 주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자신의 건강돌보기'는 3.19±0.98로 나타나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행동 영역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전문가로서 업무영역에 부합한 행동하기'의 경우 3.53±0.87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박현주(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보건의료인들의 직업적 윤리교육은 주로 대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스스로 자신의 돌봄과 전문가로서의 행동에 대한 조명은 부족f한 것으로 보여지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윤리강령 제1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전문인으로서의 품위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에서 제시하는 윤리 조항 영역에 대한 개인 스스로에 대한 직업적 책임감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으로서의 올바른 방향의 설정과 의사결정을 위한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교육이 다양화 되어야 하겠다.

<표 2>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과위생사 개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감

| 항목 | 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전문가로서 자기계발하기 | 3.47±0.99 | 4.17 | 10.94 | 31.25 | 40.63 | 13.02 |
| 자신의 건강 돌보기 | 3.19±0.98 | 3.13 | 20.83 | 39.06 | 27.60 | 9.38 |
| 안전한 진료실환경 만들기 | 3.70±0.92 | 2.08 | 6.77 | 28.65 | 44.27 | 18.23 |
| 공정하고 정당한 이윤추구하기 | 3.61±1.10 | 7.81 | 6.25 | 21.35 | 45.83 | 18.75 |
|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때 타인의 조언 구하기 | 3.43±1.07 | 5.73 | 14.58 | 23.44 | 43.23 | 13.02 |
| 전문가로서 업무영역에 부합한 행동하기 | 3.53±0.87 | 2.08 | 8.85 | 32.81 | 46.35 | 9.90 |
| 계 | 3.49±0.74 | | | | | |

### 3.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상자(환자)에 대한 책임감은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은 3.71±0.80점으로 개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감의 3.49±0.7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의사소통하기'는 3.90±0.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여 신뢰받기'가 3.89±0.95, '대상자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 교육하기'가 3.86±0.98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위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의사소통하기'에서 25%,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여 신뢰받기'가 26.04%, '대상자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 교육하기'가 27.08%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대상자의 구강상태가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기'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학생이 8.33%, '대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기'의 경우 6.25%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과위생사는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감은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그 중 다른 전문가와 논의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의 기회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이 점차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면서 의료소비자의 지각에 미치는 치과위생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고(이춘선 외, 2012), 타전문직과 협력하면서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이세정, 2012), 전문성을 갖은 의사결정능력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을(한성숙과 안성희, 1995) 생각해 볼 때, 치위생 전공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구강관리 및 예방적 처치를 위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다른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직무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다양한 법적인 소송건수 증가 등(신현호, 2003) 대상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과 그에 따른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 향상이 요구되며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3>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상자(환자)에 대한 책임감

| 항목 | 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전문지식 연마를 통한 대상자 관리하기 | 3.56±0.96 | 5.21 | 6.25 | 27.08 | 50.00 | 11.46 |
| 대상자의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는 작업환경 유지하기 | 3.71±0.87 | 1.56 | 8.85 | 20.83 | 54.69 | 14.06 |
| 모든 대상자를 공평하게 대우하기 | 3.72±0.94 | 2.60 | 6.77 | 26.04 | 44.79 | 19.79 |
|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여 신뢰받기 | 3.89±0.95 | 3.13 | 4.69 | 18.23 | 47.92 | 26.04 |
|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의사소통하기 | 3.90±0.93 | 3.13 | 4.17 | 16.67 | 51.04 | 25.00 |
| 대상자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양질의 진료제공하기 | 3.70±0.91 | 2.08 | 8.33 | 22.92 | 51.04 | 15.63 |
| 전문가로서 대상자의 복지를 위한 주장을 하기 | 3.48±0.92 | 2.08 | 11.98 | 32.29 | 42.71 | 10.94 |
| 대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 3.68±0.91 | 6.25 | 5.21 | 20.31 | 51.04 | 17.19 |
| 대상자의 구강상태가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 3.60±1.14 | 8.33 | 5.73 | 25.00 | 39.06 | 21.88 |
| 대상자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에 대해 교육하기 | 3.86±0.98 | 2.60 | 7.29 | 18.75 | 44.27 | 27.08 |
| 계 | 3.71±0.80 | | | | | |

## 4.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

본 연구에 참여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은 평균 3.63±0.82점으로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 하였다.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의 관련성을 알고 다른 전문가에게 이를 알리기', '동료로서 정직과 신뢰로서 대하기', '나와 동료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하기'가 각각 3.72±1.00, 3.70±0.90, 3.69±0.96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항목에 대한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의 관련성을 알고 다른 전문가에게 이를 알리기'가 22.10%, '동료의 치위생진료를 돕고 지지함'의 경우가 20.83%로 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동료와 충돌 시 직장 내 규 등 구조적 접근하기'의 경우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불과 10.9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김윤정 등(2005)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 윤리강령과 치과 윤리교육의 필요성 인지가 높을수록 팀웍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은 결국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최근 간호사나 치과위생사 대상의 연구에서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치위생(학)과 학생들 대상의 연구에서도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6.8%로 높게 나타났고(이선미 외, 2010),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는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6.6% 높게 나타났다(기은희, 2008).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윤리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치위생 교과과장 및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인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표 4>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

| 항목 | 점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동료를 정직과 신뢰로서 대하기 | 3.70±0.90 | 3.65 | 5.21 | 22.40 | 54.69 | 14.06 |
| 전문가로서 자기계발을 증진시키는 환경 조성하기 | 3.56±0.99 | 5.73 | 4.69 | 31.77 | 43.75 | 14.06 |
| 나와 동료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하기 | 3.69±0.96 | 4.69 | 2.60 | 30.21 | 44.27 | 18.23 |
| 동료와 충돌 시 직장 내규 등 구조적 접근하기 | 3.45±0.96 | 5.73 | 5.21 | 38.02 | 40.10 | 10.94 |
| 동료의 치위생진료를 돕고 지지함 | 3.70±1.03 | 5.73 | 4.69 | 24.48 | 44.27 | 20.83 |
|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의 관련성을 알고 다른전문가에게 이를 알리기 | 3.72±1.00 | 3.65 | 6.25 | 26.56 | 41.15 | 22.10 |
| 치과위생사로서 다른 보건의료전문가와 관계증진하기 | 3.59±1.03 | 5.21 | 6.77 | 30.73 | 38.54 | 18.75 |
| 계 | 3.63±0.82 | | | | | |

## 5.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책임감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책임감을 살펴 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리교육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윤리교육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윤리적 책임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별 차이를 살펴보면 A대학의 경우 '개인적 책임감(3.3±0.9)',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3.5±1.0)', '동료에 대한 책임감(3.4±1.0)'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C 대학의 경우 '개인적 책임감(3.8±0.6)',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4.0±0.5)', '동료에 대한 책임감(3.9±0.6')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년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2학년'과 '3학년'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인반면 '4학년'의 경우 현격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세정(2012)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성향은 이상주의 성향은 3.87점으로 상대주의 성향의 3.39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윤리적 성향에서는 이상주의 성향에서 35세 이상에서 4.13점, 30-35세 미만에서 3.94점, 25-30세 미만에서 3.84점, 25세 미만에서 3.75점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상주의 성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그러나 상대주의 성향에서는 25세 미만이 3.45점,30-35세 미만 3.41점,25-30세 미만이 3.40점으로 유사하였고, 35세 이상이 3.16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p<0.001$). 본 연구의 결과에서 '4학년'의 경우 '2,3학년'에 비하여 '개인적 책임감(2.2±0.5)',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2.5±0.6)', '동료에 대한 책임감(2.6±1.0)' 등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세정(2012)의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제한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특히 '4학년'들의 경우 대상자실습과 병원실습 및 치과병(의)원 아르바이트 등이 다양한 생각의 변화를 주었거나, 일시적으로 스스로 타협하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4학년'의 경우 '동료에 대한 책임감' 영역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본 연구에서의 특이한 사항 중 하나이며 이러한 결과는 임상에서 동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동료 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여겨진다.

현재, 의료상황에 맞는 윤리적 기준이나 제도적 틀, 윤리 교육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족한 실정이다(이세정과 한경순, 2012). 향후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실태 및 임상실무 현장에서의 위험요인 파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치위생(학)과 학생들 대상의 윤리교육 기회 확대 등 적극적인 치위생 교육과정에서의 윤리교육 강화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책임감

| 항목 | 구분 | 개인적 책임감 |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 | 동료에 대한 책임감 |
|---|---|---|---|---|
| 윤리교육경험 | 있음 | 3.5±0.8 | 3.7±0.8 | 3.6±0.9 |
| | 없음 | 3.7±0.6 | 3.9±0.5 | 3.7±0.6 |
| | p-value* | 0.0551 | 0.0006 | 0.0185 |
| 학교 | A대학교 | 3.3±0.9[a] | 3.5±1.0[a] | 3.4±1.0[a] |
| | B대학교 | 3.6±0.5[b] | 3.9±0.5[b] | 3.8±0.6[b] |
| | C대학교 | 3.8±0.6[c] | 4.0±0.5[c] | 3.9±0.6[b] |
| | D대학교 | 3.5±0.4[b] | 3.7±0.4[b] | 3.5±0.5[c] |
| | p-value§ | 0.0004 | .0022 | 0.0049 |
| 학년 | 2학년 | 3.5±0.4[a] | 3.8±0.5[a] | 3.8±0.6[a] |
| | 3학년 | 3.7±0.7[a] | 3.9±0.8[a] | 3.7±0.8[a] |
| | 4학년 | 2.2±0.5[b] | 2.5±0.6[b] | 2.6±1.0[b] |
| | p-value§ | 0.0004 | .0001 | 0.0001 |

$p<0.05$.
*. independent t-test 검정결과임
§. ANOVA 검정결과임
[a,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 Ⅳ.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고 치과의료 현장에서 윤리적 직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14일부터 2010년 10월 18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3개 3년제 대학과 1개 4년제 대학 치위생학과 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통계적 처리는 SAS Version 9.2 패키지(SAS Inc, NC, USA)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위생(학)과 3년제와 4년제 학생의 비율은 각각 53.7%와 46.3% 였고, 3학년 학생이 120명(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윤리학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9명으로 82.8%였다.
2. 개인으로서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항목에서는 '안전한 진료실 만들기(3.70±0.92)'와 '공정하고 정당한 이윤 추구하기(3.61±1.10)', '전문가로서 업무영역에 부합한 행동하기(3.53±0.87)', '전문가로서 자기계발하기(3.47±0.99)', '윤리적 딜레

마에 빠질 때 타인의 조언 구하기(3.43±1.07)', '자신의 건강 돌보기(3.19±0.98)'의 순으로 나타나 직무영역에서는 높게 나타난 반면 자기 자신의 보호행동 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3. 학생들의 대상자(환자)에 대한 책임감 부분은 각 항목별로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의사소통하기(3.90±0.93)',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여 신뢰받기(3.89±0.95)', '대상자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 교육하기(3.86±0.98)', '모든 대상자를 공평하게 대우하기(3.72±0.94)', '대상자의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는 작업환경 유지하기(3.71±0.87)', '대상자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양질의 진료제공하기(3.70±0.91)', '대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기(3.68±0.91)', '대상자의 구강상태가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기(3.60±1.14)', '전문지식 연마를 통한 대상자 관리하기(3.56±0.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로서 대상자의 복지를 위한 주장을 하기(3.48±0.92)'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학생들의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 부분은 각 항목별로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의 관련성을 알고 다른 전문가에게 이를 알리기(3.72±1.00)', '동료로서 정직과 신뢰로서 대하기(3.70±0.90)', '나와 동료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하기(3.69±0.96)', ('치과위생사로서 다른 보건의료전문가와 관계증진하기(3.59±1.03)', '전문가로서 자기계발을 증진시키는 환경 조성하기(3.56±0.9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료와 충돌 시 직장 내규 등 구조적 접근하기(3.45±0.96)'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책임감을 살펴 본 결과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은 3.71±0.80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료에 대한 책임감'은 3.63±0.82로 나타났으며 '개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감'은 3.49±0.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자기계발, 정당한 이윤 추구 등의 책임감과 대상자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준거성, 공공성의 책임감 그리고 동료에 대한 신뢰, 지지, 관계 증진 등의 책임감을 높혀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소명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이며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4학년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윤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하여 향후 지리적,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기초로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과 책임감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윤리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기은희.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2. 김윤정, 장윤정, 곽정숙, 김수남. 일부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 2005;5(1):1-5(재인용).
3. 김윤정, 임근옥, 유미선. 전남지역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윤리교육에 따른 도덕성 발달수준 평가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3):99-105.
4.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dha.or.kr. 2013
5. 박현주.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간호행정학회지 2009;15(1):128-135.
6. 신현호, 병원감염 위기 대처 방안. 병원관리연수과정. 대한병원협회. 2003
7. 안은숙.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갈등문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8. 이선미, 강부월, 김창회.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딜레마. 한국치위생과학회 2010;10(4):259-264.
9. 이세정.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성향과 전문직업성 및 윤리적 직무행동[석사학위논문]. 인천: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2012.
10. 이세정, 한경순. 임상치과위생사의 윤리적 성향과 전문직업성 및 윤리적 직무행동.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2;36(3):238-248.
11. 이춘선, 임순환, 한지형. 내부 마케팅이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학회지. 2012;12(1):15-22.
12. Christie CR, Bowen DM, Paarmann CS. Curriculum evaluation of ethical reasoning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J Dent Educ 2003;67:55-63.
13. Duley SI, Fitzpatrick PG, Zornosa X, Lambert CA, Mitchell A. Dental hygiene students' attitudes toward ethical dilemmas in practice. J Dent Educ 2009;73:345-357.
14. Mark G Kacerik, Renee G Prajer and Cynthia Conrad. Ethics instruction in dental hygiene Curriculm. J of Dent Hygiene 2003;80:1-14.
15. Homenko DF. Use of an inventory for ethical awareness in dental hygiene. J Am Coll Dent 2002;69:31-38.
16. Kacerik MG, Prajer RG, Conrad C. Ethics instruction 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J Dent Hyg 2006;80:9.